



최진덕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위대한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경남도의회 부의장, 3·15의거 기념식 참석

경남도의회 최진덕 제1부의장이 15일 오전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58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진

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헌시 낭독, 국무총리 영상 메시지 상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기념사, 3·15의거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최진덕 부의장은 “3·15의거는 시민과 학생 등 평범한 사

람들의 용기가 도화선이 돼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초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

금천구의회, 구청 200억원 탈루... 감사원 감사청구

김용진 의원 “위법대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이행해야”

서울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은 금천구청이 최근 3년간 200여억원의 세원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의원 단독으로 2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지난달 8일 제 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 했다.

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장인 김용진 의원은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통해 5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구세입과 관계된 부서로부터 세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서류열람, 구정질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드러난 세입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성수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보고했다.

김용진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구청은 이행하지 않고 최근까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형위법건축물은 연간 1200건에 1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가산·독산·시흥1동 등에 소재한 대형 불법건축물 123개소의 이행강제금(최고 1억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건축물들은 준공업 지역 내 상가 및 사무실로 준공허가를 받은 후에 주거시설로 불법용도 변경된 건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마련한 감사청구 구민 서명 캠페인 접수처에서 주민이 서명을 하고 있다.

김용진 의원 제공

물들이며 구청이 건물주에게 시정지시하고 건축주의 시정완료보고서를 구청에서 접수한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담당공무원이 오히려 행정절차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탈루시켰

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 간(2015~2017년) 건축과 산정기준으로 연간 강제이행금은 67억원(2016년 기준)으로 200여억원(추정)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밝힌 불법건축물 위법 사례는 쉼터대 설치, 취사 도구 설치, 근생시설 중 점포, 교육시설 등의 용도건물을 주거용 방으로 설치한 사례 등이다.

특히 중간에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밀양병원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반드시 철거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청은 두가지 사항(쉼터대·취사 도구 설치)만 불법건물주에게 시정통보 했으며 복도와 양쪽으로 만든 방과 불법칸막이 벽, 각방 출입문 철거조치는 시정조치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정태 기자 kmjh2001@

평택시의회, 제7대 상반기 연찬세미나 개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직원들이 연찬세미나에 참석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경기도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제197회 임시회를 마치고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의원 및 직원 등 총 30명이 참석해 제7대 시의원 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세미나는 의원과 의정수행 공직자 간 일체감 조성 및 사기증진, 유기적인 의정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사무국 한인수 의정팀장과 서연미(사무), 공은선(회계) 주무관이 현장 답사로 내실 있는 연찬회를 사전계획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화 운영위원장과 유영삼 부위원장은 “심혈을 기울여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실무능력 제고 및 사례중심의 참여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의원연찬회를 준비했으며 운영위원회의 경비절감 위주로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제7대 연찬세미나 1일차에는 의원들과 직원 상호간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일차에는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겸임교수를 초청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과 후보자 공약사항을 강의 들었다. 김원복 조사위원



전남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19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지역 도의원과 국고지원사업 추진 나서

전남 장흥군이 지역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 장흥군은 19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이충식, 김광준 전남도의회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 군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모두 120건에 이르는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와 보고를 실시하고도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

다. 주요 국고지원사업은 2020 장흥국제종합의박람회 개최,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 안중근 의사 사당 관광자원화사업, 영암 금정IC~장흥 유치간 위험도로개선사업 등으로 모두 5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식, 김광준 도의원은 군의 역점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 군수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도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원과 의정간담회를 정례화해 군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철 조사위원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수돗물이 아니라, 안전식품 이라고?

세계가 인정한 안전식품 아리수,
더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을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